

大乘起信論을 통해 본 法性偈(華嚴一乘法界圖) 연구

全 鍾植(大乘起信論研究會長)

I. 研究의 목적

법성계(法性偈)는 신라의 고승(高僧) 의상(義湘)¹⁾이 668년에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그 뜻을 요약하여 계송으로 지은 것이다.

이 법성계는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²⁾라고도 불리며 7인 30구 210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글은 바로 『화엄경』의 근본사상과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서 『화엄경』의 정신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명저로 손꼽히고 있다. 그래서 각 사찰이나 수행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한글 법성계를 지어 유통

1) 의상(義湘 625~702) 신라 후기의 승려로 화엄종의 개조, 속성은 김씨. 644년 29세에 황복사(皇福寺)에서 출가. 650 원효와 함께 당나라에 구법(求法)하러 가는 길에서, 원효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유심(唯心)의 도리를 깨달아 돌아오고,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 처음 양주에 있다가 662에 중남산 지상사(至相寺)에 화엄의 대가인 지엄(智嚴)에게서 현수 법장(賢首 法藏)과 함께 <화엄경>을 연구. 676(문무왕 16년)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화엄경을 강론하여 해동 화엄종의 창시자가 되었음. 그 뒤 신라에 돌아와 화엄종의 사찰 10개를 짓고, 702년 9월 23일 나이 78세 법랍49년으로 입적함. 고려 숙종으로부터 해동화엄시조 원교국사(圓教國師)라는 시호가 내려짐. 저서로는 『華嚴一乘法界圖』 『入法界品抄記』 『大華嚴十門看法觀』 『관진일승추요』 『천체구경』 『아미타경의기』 『백화도량발원문』 등이 있다.

2)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 일승법계도·법계도장(法界圖章)·해인도(海印圖)·법성계라고도 한다.

시키고 있다.

여기서 법성은 일체법의 본성 즉 만유의 본체를 말하고, 진여·실상·법계 등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 된다.

법성계에서 노래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먼저 법성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하는 장면(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絕一切)으로부터 시작하여, ② 그 법성이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유전연기(流轉緣起)하여 제법이 생성되는 내용(不守自性緣成)과, 그렇게 생성된 일체법의 본성과의 관계((一一切多中一, 一即一切多即一) 및 ③ 극소와 극대의 상즉성(一微塵中含十方 - 無量遠劫即一念), 그리고 ④ 그러한 상즉의 원리(九世十世互相即, 仍不雜亂隔別成)를 설해가면서, ⑤ 보리를 향한 초발심(初發心)의 중요성(初發心時便正覺)과 그 경지(十佛普賢大人境)를 설하고, ⑥ 불타의 무량한 공덕(繁出如意不思議, 雨寶益生滿虛空)의 외훈(外熏)에 의하여 중생들이 능력 따라 얻어가는 이익(衆生隨器得利益)을 설하며, ⑦ 환멸연기(是故行者還本際)과정에서의 번뇌의 차단과 행자의 수행(巨息妄想必不得), 그래서 얻어지는 능력과 覺(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을 설해 가고 있다. ⑧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각(究竟覺)을 이루어(莊嚴法界寶寶殿), 성불(成佛)한 실상(實相)의 자리(窮座實際中道床)가 바로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제자리(舊來不動名爲佛)의 심성(心性)인데 이를 부처라고 부른다고 설하여, 법성이 인격화된 본래의 자리를 설하고 있다.

한글법성계는 제6항의 참고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음선원을 비롯하여 광덕스님, 오 고산스님 해주스님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한글법성계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행본 및 잡지 등에 실린 한글법성계 등 상당수에 이른다. 이외에도 각 신행단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글법성계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본고의 논지를 위해 예시하는 것이므로 기타는 생략한다.

여기 예시(例示)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그 계송의 한글번역이 비교적 그 뜻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어느 일부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고, 더욱이 계송간의 연결성이나 계송으로서의 글귀와 음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 이를 이론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본연의 뜻을 세워 시정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몇몇 예시분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그 일부를 평가하였으나, 어느 예시(例示)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 평가는 독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생략하였다. 본고는 대승기신론의 이론을 통한 필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글법성계의 뜻을 바로 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기신론의 經典해석과 思想평가

그동안 『기신론』은 여러 경전을 해석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기신론사상의 전개와 주해(註解)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화엄(華嚴)에서의 『기신론』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왔으며, 그것은 화엄교학의 대성자(大成者)인 법장(法藏, 643-712)이 주석한 『기신론 의기(起信論義記)』의 영향력이었다. 이와 같은 기신론사상 전개의 족적(足跡)은 화엄학계 뿐만 아니라, 천태(天台), 진언(眞言), 선(禪), 정토(淨土) 등 여러 종파에 걸쳐 넓혀지고 그 영향이 깊었다. 법상(法相) 삼론(三論)의 이종(二宗)의 교학도 『기신론』을 직접 의용(依用)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는 없었다.³⁾ 기신론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화엄교학과 기신론사상과의 관계는, 초기의 화엄사상이 지론(地論)·섭론(攝論)의 양 학파의 영향 하에 있었던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6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이들 두 학파의 기신론 이해로부터, 법장을 중심으로 한 화엄의 기신론 해석으로의 변천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법장이후 화엄학

3) 柏木弘雄著 『大乘起信論の研究』 4-5쪽. 昭和56年2月28日 株式会社 春秋社

계에서는 선(禪)과의 접촉이 깊어짐에 따라 『기신론』의 일심(一心)을 원교(圓敎)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으며, 『기신론』에 대한 이해와 화엄오교판(華嚴五敎判)과의 관계는 법장자신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사상사적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사정이 『기신론』의 주석서에 반영되어, 이후 법장의 의기를 대신한 종밀(宗密, 780-841)의 주소(註疎)에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종밀(宗密)의 주소(註疎)에 다시 덧붙인 주석 자료를 첨가한 송나라의 장수자선(長水子璿)의 『起信論疎筆削記』(1030), 권일(卷一)에는

「사사(事事)가 무애(無礙)를 얻는다는 것은 모두 진여가 연(緣)을 따르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여(眞如) 수연(隨緣)은 저 사사무애(事事無礙)의 인유(因由)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事事得無礙者 皆由眞如隨緣故也。故知眞如隨緣 是彼事事無礙之由]

라고 설하여, 『기신론』의 진여수연설(眞如隨緣說)이 화엄교학의 사사무애법문(事事無礙法門)의 ‘사상적 근거’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다.⁴⁾

천태종(天台宗) 계통에서 『기신론』을 교학에 이용한 것은 제6조의 묘락대사(妙樂大師) 형계담연(荊溪湛然, 711-782) 이후부터이다. 사명(四明)의 법손(法孫)인 요연(了然)은 <大乘止觀法門>에 대한 뛰어난 주석 『大乘止觀法門宗圓記』 5권을 지었으나, 대승지관(大乘止觀)과 천태대사의 <摩訶止觀> 설을 회동(會同)하는 것에 힘쓰면서, <大乘止觀法門>에 보이는 기신론 설과 유식 설을 잘 식별하고 있다. 훗날 명(明)의 지옥(智旭, 1599-1655)이 지은 『大乘起信論裂網疎』 6권은 실차난타(實叉難陀) 역의 『기신론』을 천태(天台)의 입장에서 주석한 것이다.⁵⁾

4) 平川彰 『大乘起信論』 400-401쪽 昭和55年9月15日 4판 大藏出版子(株)

5) 위와 같은 책 401-402쪽

정토교(淨土敎) 계통에서는 도작(道綽, 562-645)이 『安樂集』에 인용한 이래, 특히 『기신론』의 수행신심분 말미에 설하고 있는 염불왕생(念佛往生)의 교설에 주목하여, 법연(法然)은 『選擇本願念佛集』(1198)에서 『기신론』을 방명왕생정토(傍明往生淨土)의 논(論)이라고 정(定)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기신론』은 여러 경전을 해석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특히 화엄교학에서는 기신론의 진여수연설(眞如隨緣說)이 화엄교학의 사사무애법문(事事無礙法門)의 ‘사상적 근거’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신론사상과 후대 여러 종파의 교리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 등이 일본에서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⁶⁾

『기신론』의 사상평가에 대하여 원효(元曉, 617-686)는 그의 소에서

“마명보살이… …여래의 심오한 경전의 뜻을 친술하여 배우는 사람(爲學者)에게는 이 한 권(起信論)으로 삼장(三藏)의 요지를 두루 규명하게 하고, 도를 닦는 사람(爲道者)에게는 온갖 분별경계를 영원히 그치어 마침내 일심(一心)의 근원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기신론이 논술한 바는 넓지만은 이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일심에서 이문(二門)을 열어, 능가경(摩羅百八)… …승만경(踰闍十五)… …열반경(鵲林一味)… …법화경(鷲山無二)… …화엄경… …반야경… … 등, 이는 여러 경전 가운데 그 핵심을 하나로 관통한 것은 오직 이 기신론뿐이다”⁷⁾

6) 위 같은 책 405-406쪽에서 인용하여 제목만 열거한다. (천태에서 본 기신론, 諸宗의 교리 및 敎判에 있어서의 기신론의 지위, 기신론의 諸宗에 미치는 영향. 天台敎義상에 있어서의 기신론의 위치. 기신론 해석의 변천-화엄교학전개의 根底로서. 中國禪思想形成의 敎學적 背景-大乘起信論을 中心으로. 등 다수)

7) 『大正藏』44卷「海東疏」上卷, 202b06-202b16. “馬鳴菩薩. 無緣大悲. 傷彼無明妄風. 動心海而易漂. 愍此本覺眞性. 睡長夢而難悟. 於是同體智力堪造此論. 贊述如來深經奧義. 欲使爲學者暫開一軸. 遍探三藏之旨. 爲道者永息萬境. 遂還一心之原. 所述雖廣. 可略而言. 開二門於一心. 總括摩羅百八之廣誥. 示性淨於相染. 普綜踰闍十五之幽致. 至如鵲林一味之宗. 鷲山無二之趣. 金鼓同性三身之極果. 華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별기에서도

「중관론(中觀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같은 것들은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고,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리되 깨뜨리는 것(能破)과 깨뜨려지는 것(所破)을 다시 허용하지 않으니 이것을 보내기만 하고 두루 미치게 하지 못하는 논(論)이라고 말한다. 또한 유가론과 섭대승론(攝大乘論)같은 것들은 깊고 얇은 것들을 두루 세워 법문(法門)을 판별하되, 스스로 세운바 법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니, 이것은 주기는 하되 빼앗지는 못하는 논(論)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기신론은 지혜롭고 어질며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여,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은 것이 없으면서 다시 허용한다. 다시 허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버린 것이 다 버려져서, 두루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주는 자가 주는 것을 다 주어버리면서 빼앗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론(論)의 조종(祖宗)이요, 모든 쟁론(爭論)을 평정하는 주인이라 일컫는 것이다.”⁸⁾

라고 하여 기신론이야 마로 모든 쟁론을 평정할 수 있는 논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승기신론 의기(義記)의 저자이고, 화엄종의 제3조인 법장(法藏, 643-712)은 기신론의 사상적 입장을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으로 규정하고 소승교학은 무론 당시의 대승교학(大乘敎學)의 이대기반(二大基盤)인 중관(中觀)과 유식(唯識)사상과 구별되는 독립적 사상체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대소승(大小乘)교학을 망라한 사종판(四宗判) 가운데에서도

嚴瓔珞四階之深因。大品大集曠蕩之至道。日藏月藏微密之玄門。凡此等輩中衆典之肝心。一以貫之者。其唯此論乎。”

8) 『大正藏』44卷「大乘起信論別記」226b04 -226b12. “如中觀論十二門論等。遍破諸執。亦破於破。而不還許能破所破。是謂往而不遍論也。其瑜伽論攝大乘等。通立深淺。判於法門。而不融遺自所立法。是謂與而不奪論也。今此論者。既智既仁。亦玄亦傳。無不立而自遣。無不破而還許。而還許者。顯彼往者往極而遍立。而自遣者。明此與者窮與而奪。是謂諸論之祖宗。群諍之評主也。”

중관은 물론 유식사상을 능가하는 가장 탁월한 사상으로 판정하고 있다.⁹⁾

이상과 같이 평가되는 대승기신론이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전파된 이래 여러 종파의 경전해석에 크나큰 영향을 주어왔음은 그마만큼 기신론의 논리와 이론이 정연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각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신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온갖 사견(邪見)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따라서 화엄일승법계도의 법성계를, 화엄교학의 ‘사사무애법문(事事無礙法門)의 사상적 근거’라고 일컬어지는 기신론 이론으로 해석한다면 지금까지의 해석에 대한 정사(正邪)를 판별할 수 있고 이론(異論)을 평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기신론의 사상체계와 법성계의 사상적 위치를 서로 관련지어 비교하면서 기신론으로서 법성계를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I. 기신론의 사상체계와 법성계의 사상적 위치

기신론은 다음 대승기신론사상체계도(思想體系圖) 및 대승일심법계도(大乘一心法界圖)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래장심(如來藏心^{도표번호2})인 여실공(如實空) 여실불공(如實不空)의 진여(眞如^{번호5})가 무명의 연(緣^{번호7})을 만나 유전연기(流轉緣起)가 시작되어 아리야식(阿梨耶識^{번호8})이 된다고 설하고, 우리의 마음 일심(一心^{번호1})이 이문(二門^{번호3})인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 그리고 체대(體大)·상대(相大)·용대(用大)인 삼대(三大^{번호6})가 진여의 체(體)를 본성으로 간직한 체, 미계(迷界)에 유전(流轉)한다고 설한다.

법성계는 기신론이 설하는 이 진여에 대하여,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

9) 朴太源의 『大乘起信論思想研究』 139쪽. 민족사 1994. 3. 30

梨耶識^(번호8)의 일생이 시작된다고 법성의 수연(隨緣)을 인격화하여 설한다.

법성계는 이러한 진(眞)에서 망(妄)으로의 연기(緣起)를, 진여 그대로의 참성품(眞性)이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여 스스로의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연(緣) 따라 일체법을 생성 한다고 유전(流轉)연기의 도리를 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본래부터 움직임 없이 고요하던 법성이 ‘어찌하여 움직이어 연(緣) 따라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하지 못하고, 단지 ‘진성이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여 그렇게 된다’고만 설한다. 그러나 기신론은 이를 ‘무명의 연’ 즉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움직이어 연기(緣起)된다고 진여수연설(眞如隨緣說)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이렇게 연기된 일체법을 법성계는, 일체는 진여라는 하나의 법체 속에 들어 있고 그 일체 속에는 그 하나의 법체가 들어 있다고 설하여, 하나가 바로 일체이고 일체가 바로 하나(一卽一切多卽一)라고 상즉(相卽)의 원리를 설한다. 그러나 기신론은 그렇게 하여 생성된 일체법에 대하여, 아리아식을 설하고 ‘인격화된’ 그 아리아식(阿梨耶識)속에서 우주만물의 일체법을 간직하고 포섭하기도 하고, 또한 그로부터 일체법이 생성되기도 한다고 설한다. 이 아리아식은 상즉하고 있는 각(覺)과 불각(不覺)의 두 가지 성격이, 각(覺)이 활동할 때는 불각(不覺)이 사라지고 불각(不覺)이 활동할 때는 각(覺)이 숨는다. 여기에서 각(覺^{도표번호9})은 불생불멸의 정법(淨法)이며 지혜(智慧)이고, 불각(不覺)은 생멸의 염법(染法)이며, 무명번뇌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명번뇌는 근본 불각(不覺)의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지말무명(枝末無明)인 삼세·육추(三細·六麤^{번호11})의 모습으로 나타나, 무명업상(無明業相)·능견상(能見相)·경계상(境界相) 등 미세한 삼세(三細)의 번뇌와, 지상(智相)·상속상(相續相)·집취상(執取相)·계명자상(計名字相)·기업상(起業相) 및 업계고상(業繫苦相) 등 거친 육추(六麤)의 번뇌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신론은 설한다. 이처럼 이들 삼세, 육추의 번뇌가 생멸의 인연으로, 의(意)와 의식(意識)으로 나타나 우리의 경험적 세계인 외계(外界)가 오직 마음

에서 나타나는 유심소현(唯心所現)의 인식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의(意^{도표번호12})는 업식(業識), 전식(轉識), 현식(現識), 지식(智識), 상속식(相續識)의 오식(五識)을 말하는데, 업식(業識)과 더불어 주관의 전식(轉識)과 객관의 현식(現識)으로 분열, 지식(智識)이 경계를 취하고 염(染)을 일으켜 상속식(相續識)이 이를 상속해가며, 의식(意識^{번호12})은 분별사식(分別事識)의 형태로 나타나 집착과 망집(妄執)이 더해가고 나와 내 것을 헤아려 분별집착(分別執着)하는 망 분별의 인식세계가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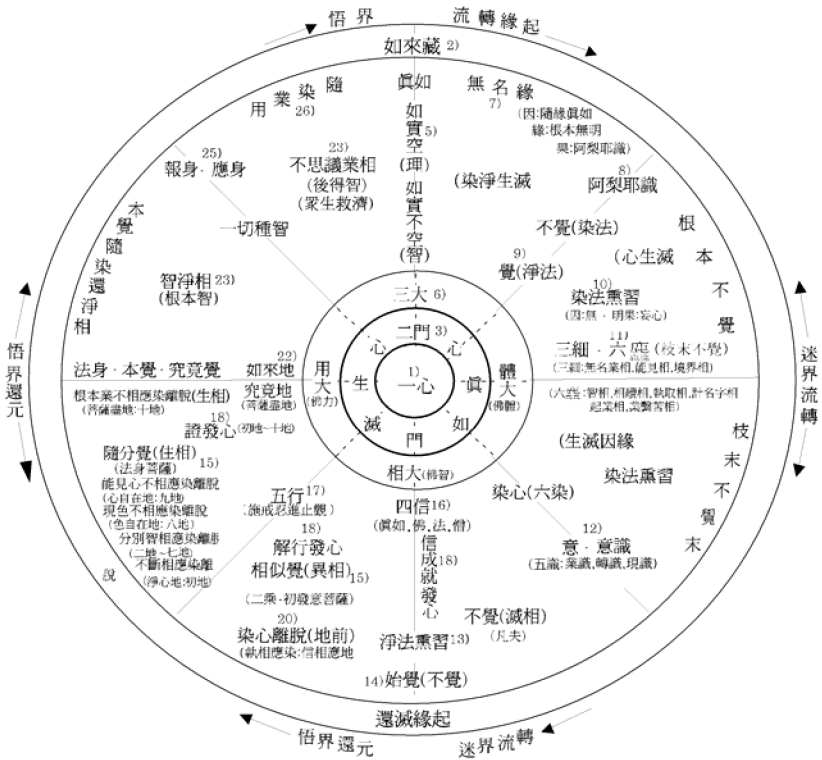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 범부 중생은 극소(極小)와 극대(極大), 찰나와 영원 등 상대적 망(妄) 분별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분별은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의 원리에 의하여 망념(妄念) 망상(妄想)이 없는 불타의 세계, 본체적 입장에서 보면, 범성계에서 설하는 극소의 티끌과 극대의 시방세계는 하나(一微塵中含十方)인 것이며, 같은 이치로 찰나의 일념과 영원의 무량겁도 시공(時空)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찰나(無量遠劫一念)라고 상즉(相即)의 원리를 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즉의 원리에 대하여 범성계는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게 이루어진다고, 잉불잡란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을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신론은 우리 범부 중생이 그와 같은 의(意)와 의식(意識)의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여섯 가지의 염심(染心^{번호12})을 일으켜 끊지 못하고 계속되다가, 마침내 신심으로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번호18})의 초발심이 일어나 진여의 근본(根本)을 믿게 되고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믿는 네 가지 신심(信心^{번호16})이 굳건해지기 시작한다고 설한다.

범성계는 이 경지에 대하여, 초발심시편정각(初發心時便正覺)을 설하여, 처음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생사와 열반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 범부로서는 그러한 이(理)와 사(事)의 상즉성에 대하여 아득하여 알 수 없는 일(理事冥然無分別)이고, 오직 불타의 경계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설한다.

大乘一心法界圖¹¹⁾

百鍊全 鍾植 作
Since 1999



大乘起信論思想體系

이상은 一心·二門·三大를 中心으로 大乘起信論이 전개하는 迷界流轉과 悟界還元の 敎理의 思想體系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같은 신심을 성취하겠다는 굳건한 발심이 비롯되면, 기신론은 오행(五行^{번호17})과 해행발심(解行發心^{번호18})·증발심(證發心^{번호18})등 스스로의 내훈(內

11) 위의 대승기신론사상체계도(大乘起信論思想體系圖)와 여기에서 도식한 대승일심법계도(大乘一心法界圖)는 동일한 사상체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식화(圖式化)한 것으로서, 각 용어에 번호를 부쳐 사상적인 상호 연관성과 위치 등을 비교 보완할 수 있게 하였고, 순서에 따라 사상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熏진여의 훈습)과 불보살(佛菩薩)의 외훈(外熏)으로 정법熏습(淨法熏習^{번호13})이 강렬해지면서, 오계환원(悟界還元)의 환멸연기(還滅緣起)가 계속된다고 설한다.

이러한 오계환원의 환멸연기는, 시각(始覺^{도표14})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불각(不覺^{번호15})으로부터 상사각(相似覺^{번호15}) 수분각(隨分覺^{번호15}) 구경각(究竟覺^{번호15})의 네 단계를 거쳐 마침내 본각(本覺^{번호21})에 합일(合一)하면서 여래법신(如來法身)이 실현되는 불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먼저 신심을 성취한 범부(凡夫)가 해행발심(解行發心)으로 이승(二乘) 또는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이 되어 상사각(相似覺)을 이루게 되고, 지전(地前)인 신상응지(信相應地)에서 집상응염(執相應染)이라 일컫는 염심(染心)이 최초로 이탈(번호20)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오계환원의 환멸연기에 대하여 법성계는 수행자가 근본자리에 돌아가려 할 때는 번뇌 망상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능력(無緣善巧捉如意)과 수분각(歸家隨分得資糧)을 이루게 된다고 간단하게 설하고 있다.

기신론은 이 같이 이탈되기 시작한 염심(染心)이 이승(二乘),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들의 시(施)·계(戒)·인(忍)·진(進)·지관(止觀)의 오행(五行) 수행을 거듭하면서 지상(地上)에 이르러, 증발심(證發心)의 법신보살이 되어 초지(初地)인 정심지(淨心地)에서 무단상응염(不斷相應染相續識)이 이탈되고, 제2지 내지 제7지까지에서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智識)이 이탈되며, 제8지인 색자재지(色自在地)에서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現識)이, 제9지인 심자재지(心自在地)에서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轉識)이 이탈된다고 설한다.

여기에서 법성계가 근본자리인 여래지에 돌아가면서 연(緣) 없이도 좋은 방편을 마음대로 잡아 쓰는 능력(無緣善巧捉如意)이 생긴다고 설하는 것은, 기신론이 8지 이상에서 진여를 증득하여, 자유자재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

즉 자재업(自在業)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설하고, 수행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으로 이루어져 9지 10지에 이르게 된다고 설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기신론의 이론에 의하면 위에서 본좌와 같이 제8지인 색자재지(色自在地)에서는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 제9지인 심자재지(心自在地)에서는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이 이탈되기 때문에 색심(色心)이 자유로워져, 연(緣) 없이도 저절로 무공용(無功用)¹²⁾으로, 좋은 방편을 마음대로 잡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증발심(證發心)의 법신보살은 수분각(隨分覺)을 이루면서, 마침내 제10지의 보살진지(菩薩盡地^{10地}의 滿位)에 이르러,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業識)의 생상(生相)을 보면서 이 염심(染心)마저 사라져 마침내 구경각(究竟覺)을 이루게 된다. 이 자리는 바로 무명이 완전히 소멸되어 법신(法身)만이 오묘한 본각(本覺)의 여래지(如來地^{도표번호22})로서, 여기에 이르고 보니 그 자리는 바로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던 제자리인데 이를 이름 하여 부처라고 한다고, 법성계는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을 설하고 있다.

IV. 법성계의 起信論적 해석

이상은 기신론과 법성계의 사상적 위치를 서로 관련지어 비교하면서 기신론으로서 법성계를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아래 6항 1)의 한글법성계의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당수에 이르

12) 무공용(無功用) : 八地이상에서는 진여를 증득, 자유자재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 즉 自在業이 功을 드러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므로 無功用이라고 하고, 수행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으로 이루어져 九地 十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원효와 법장이 기신론 주석에서 이 설을 세우고 있다.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法藏의 註釋比較』 413쪽

고 있는 천태만상의 법성계에 대하여 기신론 이론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글 법성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보기로 한다. 그동안 『기신론』이, 여러 경전을 해석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듯이, 법성계도 기신론의 이론으로 해석한다면 번역해석의 혼란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먼저 법성계의 해석을 기신론 이론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바른 뜻을 나타내고 있는 몇몇 한글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송별로 이를 평가하고, 주제별로 나누어 해석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법성계를 지은 근본적 뿌리는 화엄경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기신론의 이론을 통해 보는 것이므로,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엄과 달리 해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그것은 기신론이 이론적으로 화엄경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 法性的 實相

法性圓融無二相	법의 본성 원융하여 두 모습이 본래 없고
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은 不動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며
無名無相絕一切	이름 없고 모습 없어 그 모두가 끊겼으니
證智所知非餘境	깨달아야 아는 자리 다른 경계 아니로다.

이 부분은 법의 본성 즉 진여(법계·실상·불성·심성)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하는 것으로서, 위의 계송과 같이 법의 본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는 것이며, 모든 법은 본래부터 움직이지 아니하고 고요한 것이니,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는 그 모두가 끊긴 자리로서, 깨달아야 아는 경계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신론은 법성(法性)과 같은 뜻의 진여(眞如)에 대하여, 말을 떠난 이언진

여(離言眞如)의 설명부분에서 법성의 경지¹³⁾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진여라 함은 바로 이것은 일법계로서 대총상, 법문의 체이다. 이른바 심성은 불생불멸이다. 일체법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 만이 차별이 있는 것으로서, 만약 심념(心念 : 妄念과 같다)을 떠나면 곧 일체의 경계의 모습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본래부터, 언설(言說)의 상을 떠나 있고, 명자(名字)의 상을 떠나 있으며, 심연(心緣)의 상을 떠나 있어 필경 평등하다.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하고 파괴될 수 없으며, 오직 이것이 일심이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 한다. 일체의 언설은 가명(假名)으로서 실(實)이 아니며, 단지 망념(妄念)에 따를 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여라고 말하는 것 역시 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언설의 극을 이르는 것으로서 말로서 말을 버리는 것이다. 이 진여의 체는 버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울 것이 없는 것이며, 일체법은 모두가 그대로 같기 때문이다.”」

법성(法性)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진여(心眞如)라고도 말하고 일법계(一法界)라고도 하며, 심성(心性)이라고도 한다. 법성(法性)은 무정(無情)에 대하여 말하고, 불성(佛性)·심성(心性)은 유정(有情)에 대하여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법성은 유정(有情)·무정(無情) 모두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체 모든 법의 본성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영원한 것으로서, 본래부터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자리이고, 이름도 세울 수 없고 모습도 없는 것이어서 일체의 모든 것이 꿋꿋 자리이다. 기신론은 이를 일체 법은 본래부터

13) 법성의 경지 : 『大正藏』 32권 576a08-a17 “心眞如者卽是一法界, 大總相法門體 所謂 心性不生不滅 一切諸法 唯依妄念 而有差別, 若離心念 則無一切境界之相 是故一切法, 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唯是一心, 故名眞如. 以一切言說 假名無實, 但 隨妄念, 不可得故 言眞如者 亦無有相, 謂言說之極, 因言遺言. 此眞如體 無有可遺. 以一切法 悉皆眞故 亦無可立, 以一切法 皆同如故”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法藏의 註釋比較』 105-106쪽 도서출판 禮學 2006. 08. 15.

언설(言說)의 상을 떠나 있고, 명자(名字)의 상을 떠나 있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심연(心緣)의 상도 떠나 있다고 설한다. 그래서 일체의 언설은 가명(假名)으로서 실(實)이 아니며, 진여라고 말하는 것 역시 언설의 극을 이르는 것으로서 말로서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는 우리 중생으로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계이고, 따라서 불타와 같이 증득한 반야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경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한글 범성계 중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 불광사의 광덕스님, 해주스님, 석우스님 및 정토사분(작가 미상)은 그 뜻에 어긋남이 없으나, 기타 해석은 범성의 실상을 설하는 이 부분의 진의(眞義)를 잘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流轉緣起와 法體와의 관계

眞性甚深極微妙	그대로의 참 성품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不守自性隨緣成	자기 본성 못 지키고 인연 따라 생겨나니
一中一切多中一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一卽一切多卽一	하나 바로 일체이고 일체 바로 하나로다.

이 부분은 최초의 유전연기(流轉緣起)¹⁴⁾를 설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에서 진성(眞性)은 그대로의 참 성품인 진여(眞如)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여, 본래부터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것이지만,

14) 流轉緣起 : 유전연기는 여래장 진여가 최초로 무명의 緣을 만나 迷界에 流轉하는 것을 말한다. 기신론은 眞인 불생불멸과 妄인 생멸이 和合하여 阿梨耶識이 된다고 설한다. 『大正藏 32권』 576b7-11,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 不生不滅與生滅和合, 非一非異, 名爲阿梨耶識. 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 生一切法. 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法藏의 註釋比較』 136-152쪽 심생멸 부분.

그러한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무명(無明) 혼습의 연(緣)을 만나 진여가 연(緣)을 따라 일체 법을 생성(生成)하는 것이다.

이를 기신론은 생멸문의 생멸인연¹⁵⁾부분에서, 생멸심을 일으키는 연기를 설하고 있는데, 진여는 불변의 성질의 것이지만 동시에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수연(隨緣)기동하여 자성(自性)을 지키지 못하는 성질¹⁶⁾이 있으며, 이 수연진여(여래장)를 인(因)으로 하고 근본무명을 연(緣)으로 하여 심체(心體)가 움직이어 생멸심(生滅心) 즉 아리아식이 된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기신론은 진(眞)에서 망(妄)으로의 최초의 연기를 생멸심¹⁷⁾ 부분에서 불생멸심(不生不滅)이 체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생멸상을 떠나지 못한다고 설하고,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아니한 것을 이름 하여 아리아식이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심생멸이라는 것은 여래장¹⁸⁾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이른바 불생불멸¹⁹⁾과 생멸이 화합²⁰⁾하여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아니한 것을 이름 하여

15) 生滅因緣 : 『大正藏』 32권 577b03-16, 全鍾植 의 같은 책, 272-328쪽 생멸인연

16) 不守自性 : 法藏은 그의 義記의 生滅因緣 부분에서 “인연이라는 것은 아리아식의 心體가 自性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생멸의 因이며, 근본무명의 혼습으로 心體를 움직이게 한 것이 생멸의 緣이다. 또한 무명이 있는 자리는 모든 染法의 근본으로서, 이것이 생멸의 因이고, 바깥의 망령된 경계가 움직이어 識의 과량을 일게 하니, 이것이 생멸의 緣이 된다. 이 두 가지 뜻에 의하여 因緣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言因緣者, 梨耶心體不守自性. 是生滅因. 根本無明熏動心體. 是生滅緣. 又復無明住地諸染根本. 是生滅因. 外妄境界動起識浪. 是生滅緣. 依是二義以顯因緣) 全鍾植의 같은 책, 277-279쪽, 『법장의기 33』 부분

17) 생멸심(生滅心) : 범부의 일상적인 마음을 말한다. 불생멸(不生不滅)의 마음이 무명의 바람으로 眞如의 體를 들고 생멸심이 된다. 원효와 법장은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體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不生滅心을 말함)이 생멸상을 떠나지 못한다고 설한다.(不生滅心舉體動故 心不離生滅相)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法藏의 註釋比較』 136-152쪽, 『원효소 15』 『법장의기 15』 부분

18) 여래장(如來藏) : 번뇌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번뇌에 오염됨이 없는 자성이 청정한 심성을 여래장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隨緣眞如를 의미하고 있다.

아리아식이라 한다. 이 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능히 일체법을 포섭하고, 일체법을 생하게 한다.”²¹⁾고.

그러므로 현상세계에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만유(萬有)의 본체인 하나의 진여(여래장)에서 연기되어 생성된 것이므로, 그 일체는 그 가운데에 하나의 법체(法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성계는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바로 일체이고 일체가 바로 하나’라고, 진여의 체를 들고 일체법을 연기(緣起)하는 상관관계를 설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행스님과 광덕스님, 해주스님, 석우스님, 정토사분 중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 부분에 있어 ‘자기성품 고집 앓고’(대행스님) 또는 ‘자기성품 지키지 앓고’(광덕스님, 해주스님, 석우스님, 정토사분) 등으로 번역해석하고 있으나, 기신론의 이론으로 보면 진성의 진여(眞如)는 무명(無明)의 연(緣)으로 말미암아 불변의 진여가 수연(隨緣)진여가 되어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연 따라 생멸하여 일체법을 형성하는 것이니, 무명의 힘, 무명의 혼습으로 진여가 체를 들고 타력(他力)으로 이끌려 나온 것이므로, 스스로의 성품인 자성(自性)이 임의로 ‘고집 앓고’ 스스로 자력(自力)으로 나오거나, 자성을 ‘지키지 앓고’ 스스로 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무명의 타력(他力)으로 중생이 되어 생멸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행스님 등의 사례는 화엄학의 성기론(性起論)에 따라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기(性起)는 연기(緣起)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불변의 체성(體性)이 연기에 따라 함께 현기(現起)하는 이성(理性)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신론에서 말하는 불변(不變)의 진여가 수연(隨緣)진여가 되

19) 불생불멸(不生不滅) : 여기서는 不生滅心인 여래장 진여를 의미한다.

20) 화합(和合) : 여래장 청정심이 움직이어 생멸심이 되어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말한다.

21) 『大正藏』 32권 576b07-b11,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 不生不滅與生滅和合, 非一非異, 名爲阿梨耶識. 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 生一切法.

어, 연기된 일체법의 배후에 체(體)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성기(性起)는 연(緣)따라 이루어지는 연기(緣起)의 체성(體性)일뿐, 연 없이 불변의 이체(理體)가 스스로 성기(性起)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불수자성(不守自性)다음에 나오는 수연성(隨緣性)의 글귀는 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스스로 성기(性起)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불수자성(不守自性)을, 자성(自性) 스스로가 임의로 고집 않고 나온다거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나온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을 설하면서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던 본성이 연(緣)없이 스스로 움직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의 해석은 자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혼습연기에 의하여 불변의 진여가 수연(隨緣)의 진여가 되어, 할 수 없이 타력(他力)으로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미계(迷界)에 유전(流轉)하는 것이므로 불수자성(不守自性)의 해석은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연(隨緣)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의 ‘기신론의 경전해석과 사상평가’ 항목에서 밝힌바와 같이, 송나라의 장수자선(長水子璿)은 그의 <起信論疎筆削記> (1030), 권일(卷一)에서 “사사득무애자 개유진여수연고야 고지진여수연 시피사사무애지유(事事得無礙者皆由眞如隨緣故也. 故知眞如隨緣 是彼事事無礙之由)를 설하여, 기신론의 진여수연설(眞如隨緣說)이 화엄교학의 사사무애법문(事事無礙法門)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신론의 진여수연(隨緣)설은 무명의 혼습²²⁾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22) 무명(無明)의 혼습연기 : 『大正藏』 32권 577b27-577c05, 依無明熏習所起識者, 非凡夫能知, 亦非二乘智慧所覺. 謂依菩薩, 從初正信發心觀察, 若證法身, 得少分知, 乃至, 菩薩究竟地不能知盡, 唯佛窮了. 何以故. 是心從本已來, 自性清淨, 而有無明. 爲無明所染有其染心. 雖有染心, 而常恆不變. 是故, 此義唯佛能知.

만 이는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역시 이승(二乘)의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만이 아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한다.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일어나는 식(識)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역시 이승(二乘)의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에 의해서도, 처음 정신(正信)으로 발심 관찰하여, 만약 법신(法身)을 증득하면 조금은 알지만, 이에 보살의 구경지(究竟地)에 이르러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부처만이 궁극적으로 다 아시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 마음은 본래부터 스스로의 본성이 청정한 것이지만 무명이 있고, 무명 때문에 오염되어 그러한 염심(染心)이 있는 것이다. 비록 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체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뜻은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따름이다.”」 라고.

따라서 불수자성(不守自性)의 해석은 기신론에 의하여 자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과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의 문제도, 단순히 글귀 자체만을 해석하여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바로 일체이고 일체가 바로 하나’라는 단순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일체라고 하는 것은 만유(萬有)의 본체인 하나의 진여(眞如)가 무명의 혼습으로 연기(緣起)되어 생성된 것이므로, 그 일체(연기된 현상)는 그 가운데에 하나(본체 진여)의 법체(法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어서, 하나가 바로 일체이고 일체가 바로 하나라고, 진여의 체를 들고 일체법을 연기(緣起)한 상관관계를 설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하나는 1, 2, 3 하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라는 의미의 하나, 일법계로서의 하나, 진여로서의 하나, 법성으로서의 하나 즉 본체의 자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다.

3. 일체법의 相卽性

一 微塵中 含十方	그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 들어있고
一 切塵中 亦如是	일체 모든 티끌마다 또한 역시 그러하니
無量遠劫 卽一念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일념 찰나이고
一念卽是 無量劫	한 찰나의 한 생각이 바로 무량 세월일세.

이 부분도 역시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원리 밑에서 설하는 것이지만, 망(妄)과 망(妄) 사이의 유전연기(流轉緣起)에서 주객(主客)으로 대립된 경계를, 본체적 입장에서 설하는 것으로서, 기신론은 무명업상(無明業相), 능견상(能見相)보려는 주관, 경계상(境界相)보이는 객관 등 삼세(三細)·육추(六麤)의 불각(不覺)상을 설하고 이를 여섯 가지 염심(六染)으로 설명하면서, 수행자가 이를 차단해 가는 환멸(還滅)연기를 설하여 본체에 귀일한 경계를 설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범부 중생은 극소(極小)와 극대(極大), 찰나와 영원, 장단(長短)과 다소(多少) 등 상대적 망(妄) 분별을 일으키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별을 앞에서 보아온 일즉다(一卽一切) 다즉일(多卽一)의 원리에 의하여, 환멸연기에 의하여 망념(妄念)이 없어진 본체 본각에 귀일한 불타의 입장에서 보면, 극소의 티끌과 극대의 시방세계는 하나로 귀일한 것이므로,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설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불타의 세계에서는 찰나의 일념과 영원의 무량겁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찰나라고 상즉(相

卽)의 원리를 설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해석은 글귀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글 계송 모두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 모처럼 통일된 해석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역시 이를 설하는 뿌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극소(極小)와 극대(極大)라는 양극을 해소시키기 위한 설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무명의 혼습으로 말미암아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연을 따라(不守自性隨緣成) 미계(迷界)로의 유전연기(流轉緣起)가 이루어져 현세에서 생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적 현상세계에서는 극소(極小)와 극대(極大), 찰나와 영원, 장단(長短)과 다소(多少) 등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망(妄) 분별을 일으키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 분별을 망념(妄念)이 없는 불타의 세계, 본체적 입장에서 이를 보면, 극소의 티끌과 극대의 시방세계는 하나인 것이므로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설하는 것이지, 분별의 세계에서 글귀 그대로 해석하여 진실로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있다고 망 분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극소(極小)와 극대(極大)라는 차별개념을 해소시키기 위한 설법은 금강경에서도 설하는 것이지만, 특히 금강경 제30분의 일합이상분(一合理解相分) 즉 ‘하나로된 진리의 모습’에서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금강경의 이 부분에서는 이체(理體)와 현상이 하나라는 이치를 설하기 위하여 가장 큰 삼천대천세계와 가장 작은 미진(微塵)을 예로 드는데, 미진과 삼천대천세계는 현상으로 보면 극소와 극대로서 크고 작은 것이지만, 이체(理體)인 본체에서 보면 한 뿌리의 동상(同相)으로서 크고 작음이 없는 것이며, 세계라든가 먼지라든가 하는 언설도 단지 이름일 뿐, 그 이름이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설하고 있다. 여기서 세우는 일합상(一合相)이라고 하는 것도 부득이 하나

로 된 진리의 상을 설하기 위하여 이름을 지은 것일 뿐, 실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그 일합상도 일합상이 아니고 이름이 일합상이라고 설하여 범부들이 실상이 아닌 언설에 매달리는 것을 경계(警戒)하고 있다.²³⁾

이러한 설법은 ① 미진(微塵)과 세계(世界)라는 동상(同相)과 이상(異相)²⁴⁾의 원리를 설하고 있기도 하고 ② 현상세계에서의 상대적 언설을 파(破)하여 실상을 들어내기 위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며 ③ 또한 하나와 일체(一切)가 모두 함께 상즉(相即)하고 있다는 진리를 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즉(相即)의 원리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다는 것이다.

4. 相即의 원리

九世十世互相即 구세 십세 서로 얽혀 상즉하고 있는데도
仍不雜亂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네.

23) 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8卷, 748c16-752c07, 제30 一合理相分. 須菩提. 若善男子善女人. 以三千大千世界碎爲微塵. 於意云何. 是微塵衆寧爲多不. 甚多世尊. 何以故. 若是微塵衆實有者. 佛則不說是微塵衆. 所以者何. 佛說微塵衆則非微塵衆. 是名微塵衆. 世尊. 如來所說三千大千世界 則非世界. 是名世界. 何以故. 若世界實有者 則是一合相. 如來說一合相 則非一合相. 是名一合相. 須菩提. 一合相者 則是不可說. 但凡夫之人貪著其事)』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을 통해본 金剛經의 세계』 383-393쪽 도서출판 禮學 2004 11.

24) 동상(同相)과 이상(異相) : 『大正藏』32卷「乘起信論」眞諦譯, 577a22-577b02. 「여기 동상(同相)으로서 같다고 말하는 까닭은, 마치 여러 가지 토기(土器)가 모두 한결같이 흙(미진)으로 만든 것과 같이, 완전무결한 각(覺)과 무명으로 생긴 여러 가지 환상적 불각은 모두 한결같이 진여(眞如)를 본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상(異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와기(瓦器)는 각각 동일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이하 생략…의 차별 때문이다.(言同相者譬如種種瓦器皆同微塵性相, 如是, 無漏無明種種業幻, 皆同眞如性相. … 言異相者, 如種種瓦器各各不同, 如是, … 差別故.)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또한 각기 삼세가 있다는 구세(九世)와 다시 이 구세(九世)를 포용하는 일세(一世)를 더하여 십세(十世)라는 무량세가 서로 상즉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현상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즉(相卽)의 논리로 중생(衆生)이 바로 불(佛)이요, 번뇌(煩惱)가 바로 보리(菩提)임을 설하는 것이지만, 이는 불타의 세계에서 보는 입장이고, 현상의 세계에서는 중생은 중생일 뿐 부처가 아니며, 부처와 중생은 따로따로 뚜렷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즉(相卽)의 원리를 오해하여, 본체적 입장이 아닌 현상의 중생세계에서, 중생(衆生) 즉불(卽佛)의 논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해석은 정토사분과 해주스님분이 의미가 정확하고 기타 번역문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행스님 분은 ‘구세(九世) 십세(十世)’를 ‘세간이나 출세간’으로 번역해석하고 있어 구세 십세의 진의(眞義)를 이해하기 어렵고, 광덕스님 분은 ‘구세도 십세도 서로서로 즉했으니(九世十世互相卽)’ ‘그러므로 잡란 없이 따로따로 이루어라(仍不雜亂隔別成)’고 번역하여, 그 의미가 상반되고 있다. ‘구세 십세가 상즉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즉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5. 發心과 불타의 경계

初發心時便正覺	처음 발심 내는 때에 문득 정각 이루나니
生死涅槃相共和	생과 死와 열반 모두 서로 함께 있지 만은
理事冥然無分別	理와 事인 본체 현상 아득하여 분별없어
十佛普賢大人境	시방 제불 보현보살 大人들의 경계로다.

이제 법성계는 위와 같은 상즉의 원리로부터 발심으로 인한 깨달음과 그 경계를 설한다. 이러한 상즉의 이치는 초발심(初發心)시, 즉 처음 발심을 내는 때에 문득 바른 깨달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니, 그래서 생사(生死) 열반(涅槃)도 함께 상즉(相即) 해 있다는 것도 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理)인 본체(本體열반)와 사(事)인 현상(現象생사)세계는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는 어둡고 아득하여 분별할 수 없는 경계로서, 시방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같은 대인(大人)들만이 이는 경계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행스님, 광덕스님, 정토사부, 해주스님분이 그 의미는 대체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십불(十佛)²⁵⁾의 해석을 화엄경의 뿌리 그대로 십불(十佛)로 표현하면, 범부들은 언 듯 부처님이 열 분만 계시는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누구나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정된 부처님만이 아닌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행스님, 서춘스님 등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초발심시편정각(初發心時便正覺)에서의 편정각(便正覺)의 의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초발심시에 바로 정각(正覺)을 이룬다’거나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등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서의 정각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기신론은 성문 연각 등 이승(二乘)과 같은 지위의 초발의(初發意초발심과 같음)보살의 경지²⁶⁾에 대하여 시각(始覺)의 사위(四位)중 둘째인 상사

25) 十佛 : 화엄경에서 하는 말로 지엄(智嚴)이 지은 「화엄공목장」에 있다. 해경(解境)의 십불과 행경(行境)의 십불이 있는데 여기서는 행경(行境)의 십불, 즉 수행이 끝난 사람이 얻는 부처님의 경지를 각자의 수행의 방법에 따라 그 경지를 얻는다고 보고 正覺佛·願佛·業報佛·住持佛·化佛·法界佛·心佛·三昧佛·性佛·如意佛 등 여러 가지 이름을 10 가지로 보고 나누어 부친 이름인데, 부처님을 이러한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기신론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十佛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으로 이를 해석한다. 법성계의 이 구절의 원 뜻도 대인들의 경계를 설하려 한 것이므로 그렇다고 본다.

26) 初發意보살 : 『大正藏』 32권 576b20-576b22 ,如二乘觀智,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蘊分別執著相故, 名相似覺.

각(相似覺)을 이룬 경지로 보고 있고, 이 경지는 지전(地前)에서 여섯 가지 염심(染心) 중 가장 거친 염심인 집상응염(執相應染)이 이탈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타의 경계인 정각(正覺)을 이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처음 발심(發心)을 하게 된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²⁷⁾의 중요성을 설하는 기신론의 이론으로 볼 때 초발심 때에 ‘문득 바르게 깨닫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6. 불타의 功德과 중생 饒益

能人海印三昧中	부처님의 해인삼매 禪定 속에 계시면서
繁出如意不思議	부사의 한 무진법문 마음대로 쏟아내니
雨寶益生滿虛空	중생위한 보배 법 비 온 누리에 가득하여
衆生隨器得利益	중생들이 그릇 따라 제 이익을 얻는 구나.

이 부분은 불타의 공덕과 중생이 얻는 이익을 설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전지(全知) 전능(全能)하신 분은 고요한 바다에 만물이 비치듯 해인삼매의 선정(禪定) 속에서 중생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부사의 한 무궁한 법과 지혜광명 등을 마음대로 쏟아내고 법계를 비쳐주니, 중생위한 진리의 보배 비가 온 누리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중생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근기 따라 제 이익을 얻어 간다는 것이다.

기신론은 이와 같은 불타의 공덕을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중 체상(體

27) 발심(發心) : 발심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약칭으로서, 불타의 깨달음을 증득코자 하는 결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기신론의 경우 발심에는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解行)발심, 증(證)발심 등 세 가지가 있다.

全鍾植의 같은 책 496-561쪽 제3절 분별발취도상

28)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 자기의 본성이 진여, 자성정정심이라는 것을 믿는 ‘信’이 확립된 때 일어나는 발심. 十信위를 지나 十住의 初位인 發心住에서 일어난다.

相) 이대(二大)²⁹⁾의작용으로 대지혜(大智慧)광명과 편조(遍照)법계, 진실식지(眞實識知) 상락아정(常樂我淨) 등 여섯 가지 공덕을 설하고 있으나, 이는 향하의 모래 수보다 더 많은 일미(一味)의 부사의 한 무한 공덕을 설하고 있는 것이며, 용대(用大)³⁰⁾에서는 불타의 중생 구제작용이 범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사의 한 작용으로 저절로 나타나 중생이 스스로의 지력(智力)만큼 불도의 이익을 얻어가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대행스님과 광덕스님, 그리고 정토사본이 비교적 뜻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다.

7. 行者的 수행과 始覺

是故行者還本際	그러므로 수행자가 근본자리 돌아갈 때
叵息妄想必不得	번뇌 망상 끊지 않곤 증득할 수 없음이며
無緣善巧捉如意	緣 없이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잡아 쓰며
歸家隨分得資糧	본 고장에 돌아가니 분수 따른 覺을 얻네.

지금 법성계는 여기에서 환멸연기(還滅緣起)³¹⁾와 수분각(隨分覺)을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근본자리에 돌아가는 환멸연기가 이루어질 때는

29) 體大·相大 : 『大正藏』 32권 579a12-a20. 復次, 眞如自體相者, 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 無有增減. 非前際生 非後際滅, 畢竟常恒. 從本已來, 性自滿足一切功德. 所謂 自體有大智慧光明義故. 徧照法界義故. 眞實識知義故. 自性清淨心義故. 常樂我淨義故. 清涼不變自在義故. 具足如是過於恒沙不離不斷不異不思議佛法 乃至 滿足, 無有所少義故, 名爲如來藏, 亦名如來法身.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法藏의 註釋比較』 420-433쪽 도서출판 禮學 2006. 08.

30) 用大 : 『大正藏』 32권 579b14-b20. 以有如是大方便智, 除滅無明, 見本法身, 自然而有不思議業種種之用, 卽與眞如等徧一切處, 又亦無有用相可得. 何以故. 謂諸佛如來唯是法身智相之身, 第一義諦, 無有世諦境界, 離於施作, 但隨衆生見聞得益故說爲用. 全鍾植의 같은 책, 437-442쪽

31) 還滅緣起 : 번뇌 망상의 染心을 차단하여 悟界에 환원하는 緣起를 말한다.

번뇌 망상을 끊지 않고서는 증득해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며, 염심(染心)을 차단하면서 지상(地上)에 오른 법신(法身)보살은,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까지의 수행을 통하여 연(緣)없이도 좋은 방편을 마음대로 잡아 쓰는 경지에 이르고, 본 고장(如來地)에 돌아가면서 진여를 부분적으로 증득하여 그에 따른 각(隨分覺)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자량(資糧)³²⁾은 각(覺)을 의미하고 있다.

기신론은 번뇌 망상인 염심을 차단하여 각(覺)을 이루는 과정을 시각(始覺)³³⁾부분에서, 불각(不覺)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행의 진전에 따라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을 거쳐 구경각(究竟覺)에 이르는 4 단계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성계의 이 부분은 이 네 가지 단계의 각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각(覺)으로서 초지(初地)이상 제10지의 만위(滿位)직전까지에서 법신보살(法身菩薩)이 수행으로 얻는 수분각(隨分覺)을 설한다고 볼 수 있다. 기신론은 초지에서 무단상응염(不斷相應染), 2자·7지에서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 8지에서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및 9지에서 능견심불상응염(能

32) 자량(資糧) : 여기서 자량은 수행 따라 얻어지는 각(覺)을 의미한다. 본래 이 자량위는 보살수행의 5위 가운데 첫 위를 말하는데, 10주 10행 10회향 30위중 初住부터 10회향의 住心까지를 자량위라 한다. 이위치는 三賢位로서 법신보살 이전의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서 설하는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의 계승으로 볼 때, 緣 없이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잡아 쓰는 경지는 法身位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본 고장에 돌아가는 경지에 맞는 분수는 기신론 설로 보면 法身位에서의 資糧을 얻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資糧은 법신보살의 隨分覺이 되어야 한다.

33) 始覺 : 『大正藏』 32권 576b15-b27, 始覺義者, 依本覺故而有不覺, 依不覺故說有始覺. 又, 以覺心源故名究竟覺. 不覺心源故非究竟覺. 此義云何. 如凡夫人覺知前念起惡故, 能止後念令其不起, 雖復名覺, 即是不覺故. 如二乘觀智,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羶分別執著相故, 名相似覺.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羶念相故, 名隨分覺. 如菩薩地盡滿足方便, 一念相應, 覺心初起, 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 得見心性, 心即常住, 名究竟覺. 是故 修多羅說, 若有衆生能觀無念者, 則爲向佛智故. 全鍾植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法藏의 註釋比較』 157-200쪽.

見心不相摩染) 등의 염심을 차단하여 진여를 부분적으로 증득해 가는 과정을 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3위의 수분각으로서, 염심(染心)이 대부분 이 탈된 경지이며, 미세한 마지막의 근본무명(根本無明)의 생상(生相 根本業不相應染)만을 남겨둔 위치이다.³⁴⁾

시각(始覺)의 제4위 중 첫째의 불각(不覺)은 범부(凡夫)가 시각(始覺)으로서 본각(本覺)을 향하는 출발지점을 말한다. 시각(始覺)의 출발점에 있는 불각(不覺)의 범부는 과거의 망념이 악(惡)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고, 뒤에 일어나는 망념이 동일한 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시각단계이며, 상사각(相似覺)은 시각(始覺)의 제2위로서 성문(聲聞)과 연각(緣覺)등 이승(二乘)과 초발의(初發意)보살의 수행단계이며, 지전(地前)의 신상응지(信相應地)까지 육염(六染) 중 가장 거친 번뇌인 집상응염(執相應染)이 이탈되어 각(覺)과 유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하여 상사각(相似覺)이라 이름 한다. 수분각(隨分覺)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초지(初地)이상 십지(十地)의 만위(滿位) 직전까지의 법신보살(法身菩薩)의 수행 단계이다. 구경각(究竟覺)은 각(覺)의 최고단계로서, 최후의 염심인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마저 사라져, 무명이 생기는 모습인 생상(生相)을 보면서 본각과 합일되어 마음의 본체에 있어서의 영원불변의 원리와, 현상계에 있어서의 생멸변화 하는 원리를 완전히 통달한 경지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始覺)이 본각(本覺)과 합일하여 완성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염심(染心)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환멸연기는 스스로의 진여가 혼습하는 자체상혼습(自體相熏習 內

34) 染心の 차단 : 『大正藏』 32권 577c07-c15, 染心者有六種. 云何爲六. 一者執相應染. 依二乘解脫, 及信相應地遠離故. 二者不斷相應染. 依信相應地, 修學方便, 漸漸能捨, 得淨心地, 究竟離故. 三者分別智相應染. 依具戒地漸離, 乃至, 無相方便地究竟離故. 四者現色不相應染. 依色自在地能離故. 五者能見心不相應染. 依心自在地能離故. 六者根本業不相應染. 依菩薩盡地得入如來地能離故. 全鍾植의 같은 책 316-328쪽.

熏)과 응신(應身) 보신(報身)이 외부에서 훈습하는 용훈습(用熏習 外熏)의 정법훈습(淨法熏習)³⁵⁾에 의하여 망심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苦)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 수행하게 되니, 중생은 스스로의 지력(智力) 만큼 불도(佛道)를 얻어 가기도 하며 또한 불보살의 동체(同體)지력(智力)으로 삼매에 의하여 평등하게 제불을 보고 각(覺)의 자량(資糧)을 얻어 가는 것이다.

법성계에 대한 이 부분의 한글개송은 대부분 해석의 뜻이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부는 뜻이 잘 맞지 않고 있다. 비교적 뜻을 잘 나타낸 대행스님도 무연선교착여의(無緣善巧捉如意)를 ‘무연자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재하면’으로 해석하여 뜻이 좀 애매하고, 귀가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도 ‘보리열반 성취하는 밑거름을 얻음일세’라고 해석하여 너무 의역(意譯)된 것 같다.

위에서 기신론 이론으로 설명한바와 같이 모든 수행자는 번뇌 망상인 염심(染心)을 차단하지 않으면 여래지(본고장, 근본자리)에 증득해 돌아 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행자는 계속적인 정진수행으로 ‘연(緣) 없이도 좋은 방편을 마음대로 잡아 쓸 수 있는’ 법신보살의 지위에 이르러야 본 고장에 돌아가는 수분각(隨分覺)을 얻는 것이다.

본고장에 돌아가서 망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전에 번뇌 망

35) 淨法熏習 : 『大正藏』 32권 578b06-c29, 云何熏習起淨法不斷。所謂以有眞如法故。能熏習無明。以熏習因緣力故。則令妄心厭生死苦樂求涅槃… …自體相熏習者。從無始世來具無漏法。備有不思議業作境界之性。依此二義恒常熏習。以有力故。能令衆生厭生死苦。樂求涅槃。自信己身有眞如法。發心修行… …用熏習者。卽是衆生外緣之力。如是外緣有無量義… …一者差別緣。二者平等緣。差別緣者。此人依於諸佛菩薩等。從初發意始求道時。乃至。得佛。於中。若見。若念。或爲眷屬父母諸親。或爲給使。或爲知友。或爲怨家。或起四攝。乃至。一切所作無量行緣。以起大悲熏習之力。能令衆生增長善根。若見。若聞得利益故… …平等緣者。一切諸佛菩薩皆顯度脫一切衆生。自然熏習恒常不捨。以同體智力故。隨應見聞。而現作業。所謂。衆生依於三昧。乃得平等見諸佛故。全鍾植의 같은 책380-416쪽.

상을 차단해야 돌아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광덕스님이 환본제(還本際)를 ‘본제에 돌아가서’라 하고 귀가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을 ‘본집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양식 얻네’라고 하는 등 돌아간 뒤에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 글귀의 착오일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정토사분도 그렇고, 해주소님분도 역시 비슷하다.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문제 있는 부분이다.

구경각 부분은 법성계에서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의 계송에 해당되고, 기신론은 여래지(如來地)에 이른 경지를 수염본각(隨染本覺)³⁶⁾의 입장에서 지정상(智淨相)과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을 설한다. 지정상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법력(法力)의 훈습(內熏과 外熏)에 의하여 여실수행으로 깨달음의 수행이 완성되어 지혜가 청정해진 근본지(根本智)를 말하고,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은 근본지에 따라 나타나는 불타의 중생구제 활동(後得智)을 말하지만 법성계는 후득지까지는 설하지 않고 있다.

8. 究竟 覺位の 如來

以陀羅尼無盡寶	다라니의 다함없는 법문진리 보배로써
莊嚴法界實寶殿	일법계를 장엄하여 보배 궁전 만들고서
窮坐實際中道床	궁극으로 實相자리 中道 상에 앉고 보니

36) 隨染本覺 : 『大正藏』 32권 576c05-c19 復次, 本覺隨染分別, 生二種相, 與彼本覺不相捨離. 云何爲二. 一者智淨相, 二者不思議業相. 智淨相者, 謂依法力熏習, 如實修行, 滿足方便. 故破和合識相, 滅相續心相, 顯現法身. 智淨淨故. 此義云何. 以一切心識之相皆是無明, 無明之相不離覺性, 非可壞, 非不可壞. 如大海水因風波動, 水相風相不相捨離, 而水非動性, 若風止滅, 動相則滅, 濕性不壞故. 如是衆生自性清淨心因無明風動, 心與無明俱無形相, 不相捨離, 而心非動性, 若無明滅, 相續則滅, 智性不壞故. 不思議業相者, 以依智淨, 能作一切勝妙境界. 所謂無量功德之相, 常無斷絕, 隨衆生根, 自然相應, 種種而現得利益故. 全鍾植의 같은 책 201-218쪽.

舊來不動名爲佛 예로부터 제자리인데 이름 하여 부처라네.

수행자가 수행을 계속하여 이제 최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행자는 선정(禪定)과 법보(法寶)인 무진장한 다라니 등을 통하여 진여법계를 장엄하면서 궁극적인 최후의 구경각(究竟覺)을 이루어 여래지(如來地)의 보배 궁전에 들어가 본각(本覺)자리인 중도의 실상(實相)자리에 앉게 된다. 이 자리는 본래부터 움직임 없던 스스로의 정화(淨化)된 마음으로서, 법성이 인격화 되어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으로 환원된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 온 것인데, 이를 이름 하여 부처라고 한다고 여래의 실상을 설하고 있다.

기신론이 설하는 이상의 4위에 대하여 기신론에서는 처음으로 각(覺)을 이루려는 시각(始覺)이 불각(不覺)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상승하여 본각(本覺)에 귀일(歸一)하는 것이므로, 시각(始覺)이 본각(本覺)과 합일된 시점에서 보면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 것이므로, 중생 즉불(衆生 卽佛)로서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은 별도의 것이 아니며, 이 본각(本覺)이 바로 여래 법신(法身)인 것이다.

이부분에 대한 한글게송은 어느 일부를 제외하고는 뜻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지만 대체적으로 본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모든 경전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 어떠한 경전이라도 이 기신론의 이론으로 관찰하고 해석한다면 그 해석의 정사(正邪)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V. 結 語

이상의 대승기신론의 사상체계와 법성계에 나타난 게송(偈頌) 등을 살펴 보면 모두가 서로 연관되고 그 핵심이 관통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호 적용시

켜보면 법성계(法性偈)의 정론(正論)을 확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보아 온바와 같이 법성계는 법성(法性)의 근본적인 실상(法性圓融無二相)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전연기(流轉緣起)에 의하여 제법이 생성되는 내용(不守自性隨緣成)과 그래서 생성된 일체법의 본체와의 관계(一卽一切多卽一), 극소와 극대의 상즉성(一微塵中含十方), 상즉(相卽)의 원리(仍不雜亂隔別成), 보리를 향한 초발심(初發心)의 중요성(初發心時便正覺)을 설하고, 불타의 무량한 공덕(雨寶益生滿虛空)과 중생들의 이익(衆生隨器得利益), 그리고 환멸연기과정(是故行者還本際)에서의 행자의 수행과 번뇌의 차단(巨息妄想必不得), 그래서 얻어지는 능력(無緣善巧捉如意)과 수분각(歸家隨分得資糧)을 이루는 과정 등이 설해져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최후의 구경각(究竟覺)을 이루어 여래지(如來地)에 이른(莊嚴法界實寶殿) 실상(實相)의 자리(窮座實際中道末)는 다름 아닌 바로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스스로의 심성(心性)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일러 부처라고 한다(舊來不動名爲佛)고 설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의상조사의 법성계는 지금까지 검토한바와 같이, 또한 아래 참고사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사찰이나 수행단체 등에서 나름대로의 한글 법성계를 지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그 한글 법성계는 천차만별이고, 그 내용 또한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계가 이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정론(正論)으로서의 한글 법성계가 유통되도록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VI. 참고사항

1) 한글 법성계 현황(시중 유통분)

〈표 1〉

법성계의 한문계송	필자의 한글계송	대행스님 ³⁷⁾ (한마음선원)	서춘스님 분 ³⁸⁾	문수선원 분 ³⁹⁾
法性圓融無二相	법의 본성 원용하여 두 모습이 본래 없고	법의 성품 원용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성품자리 원만하여 분별심 없으므로	오묘하고 원만한 법 둘이 없나니
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며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네.	모든 법이 요동없이 본래부터 고요하다	본방 고요하고 산 같은 진리
無名無相絕一切	이름 없고 모습 없어 그 모두가 끊겼으니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겼으니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삼라만상 끊으므로	이름과 모양다리 모다 없나니
證智所知非余境	깨달아야 아는 자리 다른 경계 아니로다.	깨친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로 알 수없네.	지혜본성 알아서니 어떤 방편 증명 하리	이름 아리 누가 있어 증명할거나
眞性甚深極微妙	그대로의 참 성품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참 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깊고 깊고 매우 깊은 참된 성품 진리자리	깊고도 현묘할 손 진리의 성품
不守自性隨緣成	자기본성 못 지키고 인연 따라 생겨나니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나투 우네.	자성마음 못 지키면 인연 따라 나타날세.	내 성품 못 벗으면 인연 따라 이투네.
一中一切多中一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하나 중에 전체이고 전체 중에 하나므로	하나에 모다 있고 많은데 하나있어
一卽一切多卽一	하나 바로 일체이고 일체 바로 하나로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하나로써 모두이고 모든 것이 하나로다	하나 곧 모다이고 모다 곧 하나이니
一微塵中含十方	그 하나의 티끌 속에	한 티끌 그 가운데	조그마한 먼지 속에	한 티끌 작은 속에

	시방세계 들어 있고	온 우주를 머금었고	우주공간 나타나고	세계를 먹음었고
一切塵中亦如是	일체 모든 티끌마다 또한 역시 그러하니	날날의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네.	티끌마다 우주공간 나타남이 확연하다	날날의 티끌마다 세계가 다 들었네.
無量遠劫卽一念	한량없는 긴 새월이 바로 일념 찰나이고	끝도 없는 무량겁이 한 생각의 찰나이고	한량없는 긴 시간이 한 생각에 나타나고	한없는 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一念卽是無量劫	한 찰나의 한 생각이 바로 무량 세월일세.	찰나의 한 생각이 끝도 없는 겁이어라.	한 생각에 한량없는 긴 시간이 나타날세.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긴 겁이니
九世十世互相卽	구세 십세 서로 얽혀 상즉하고 있는데도	세간이나 출세간이 서로 함께 어울리되	시간으로 공간으로 서로서로 상통함이	가없는 넓은 세계 영킨 듯 한덩이요.
仍不雜亂隔別成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네.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따로 이루었네.	복잡않고 분별없이 날날으로 원만할세	그러나 따로따로 뚜렷한 단상일세.
初發心時便正覺	처음 발심 내는 때에 문득 정각 이루나니	처음 발심하온 때가 바른 깨침 이룬 때요	처음마음 발심마음 바른마음 하나므로	처음내킨 그마음이 부처를 이룬때고
生死涅槃相共和	생과 사와 열반 모두 서로 함께 있지만은	생과 사와 열반 경계 그 바탕이 한 몸이니	생사마음 열반마음 서로서로 같은마음	생사와 열반의 본바탕이 한경계니
理事冥然無分別	리와 사인 본체 현상 아득하여 분별없어	근본·현상 명연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가치관이 모양이름 분명하여 분별없이	있는데 이사 분별 혼연히 없는 그곳
十佛普賢大人境	시방제불 보현보살 대인들의 경계로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성인들의 경계러라.	모든부처 바름바름 실천함이 가피로세	시방제불 나투신 부사의 경계로세.
能人海印三昧中	부처님의 해인삼매 선정 속에	부처님의 거룩한 법 갈무리한 해인	부처님의 바다마음 가피속에	부처님 해인삼매 그속에

	계시면서	삼매	나투심이	니툼이여
繁出如意不思議	부사의 한 무진범문 마음대로 쏟아내니	불가사의 무궁한 법 그 안에서 들어내어	함미없는 무진말씀 불가사의 가피일세	쏟아놓은 부처님 뜻 그속에 부사의여
雨寶益生滿虛空	중생위한 보배 범 비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 유익토록 온 누리에 범비 내려	감로범비 중생구제 탕빈면뇌 진리충만	이로운 범의비는 허공에 가득하야
衆生隨器得利益	중생들이 그릇 따라 제 이익을 얻는구나.	중생들의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게 하네	생각생각 순용하니 삼라망상 주인공아	제나름 중생들로 온갖원 얻게하네
是故行者還本際	그러므로 수행자가 근본자리 돌아 갈 땐	이런 고로 수행자는 근본으로 돌아가되	실천행위 바름으로 고향소식 알고나니	행자가 고향으로 깨달아 돌아가면
叵息妄想必不得	번뇌 망상 끊지 않곤 증득할 수 없음이며	망상심을 쉬지 않곤 얻을 것이 하나 없네.	헛된마음 사라짐이 거울속에 분명하다	망상을 얹설려도 얹설길 바이없네
無緣善巧捉如意	緣없이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잡아 쓰며	무연자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재하면	함이 없는 방편으로 가치관을 알아서니	무연의 방편으로 여의보 찾았으니
歸家隨分得資糧	본고장에 돌아가니 분수 따른 覺을 얻네.	보리열반 성취하는 밀거름을 얻음일세.	생각따라 순용함이 깊은계곡 소리메다	자기의 생각대로 재산이 풍족하네
以陀羅尼無盡寶	다라니의 다함없는 범문진리 보배로서	이 말씀 무진범문 한량없는 보배로써	다함없는 다라니의 보배로운 공덕으로	다라니 무진보배 끝없이 쓰고또써서
莊嚴法界實寶殿	일 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만들고서	온 법계를 장엄하여 불국토를 이루면서	진리세계 장엄함이 진실보배 법왕궁에	불국토 법왕궁을 여실히 꾸미고서
窮座實際中道床	궁극으로 실상자리 중도 상에 앉고 보니	마침내는 진여법성 중도자리 깨달으니	중도실상 해탈자리 함이 없이 알아서니	중도의 해탈좌에 그윽히 앉았으니

舊來不動名爲佛	예로부터 제자리는데 이름 하여 부처라네.	본래부터 부동하여 이름 하여 부처라네	본래모습 그대로를 이름하여 부처라네	옛부터 동함없어 그이름 부처일세.
---------	---------------------------------	-------------------------------	------------------------------	-----------------------------

〈표 2〉

법성계 원문	광덕스님분 ⁴⁰⁾	석우스님분 ⁴¹⁾	‘禪문화’ 8월호계제분 42)	진리를 추구하는 만대산 ⁴³⁾
法性圓融無二相	법의 성품 원융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법성은 원융하여 二상이 없고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아니고	원융한 법의 성품 두 모습이 아니로다.
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이 동함 없어 본래부터 고요해라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함이라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어 본래 고요하다	모든 법은 변함없어 본래가 고요한데
無名無相絕一切	이름 없고 형상 없고 온갖 것이 끊었으니	이름도 없고 형상도없고 일체가 끊어져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이 일체를 끊으면	이름 없고 모습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證智所知非余境	참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	증지 해야 알 바요, 다른 경계는 아니다.	증지(주체)와 소지(객체) 는 다른 여지가 없다	지혜 근본 지혜 다른 경계 아니로다.
眞性甚深極微妙	참된 성품 삼히 깊어 지극히	진성은 매우 깊고 지극히	진성은 참으로 깊고도 지극히	참된 성품 깊고 깊어 지극히도

37) 대행스님, 한미음선원. www.hanmaum.org 한미음독송 법성계

38) 서춘스님 법성계. cafe.daum.net/hain88 나무관세음보살님

39) 문수선원 cafe.daum.net/moonsutemple 한글법성계

40) 광덕스님. 불광사. www.bulkwangsa.org

41) 석우스님. 법성계강의 pp 422-424. 도서출판 여래. 2005. 7.

42) 선문화 2006. 8월호 pp130-131 박정진 ‘불교의 대칭성과 일류의 희망’에서

	미묘하니	미묘하여	미묘하여	오묘하니
不守自性隨緣成	자기성품 지키잖고 인연 따라 이루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이름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자기성품에 묶이지않고 인연 따라 이뤄지네
一中一切多中一	하나 중에 일체있고 일체 중에 하나있어	하나 가운데 일체있고 다중에 하나있어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여럿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모두 있고 여럿 속에 하나있네.
一卽一切多卽一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하나가 곧 일체요, 다가 곧 하나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며 여럿이 곧 하나이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네
一微塵中含十方	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	한 티끌 속에 시방을 다 포함하고 있고	하나의 티끌가운데 시방세계가 포함되어있고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세계 담겨 있고
一切塵中亦如是	일체의 티끌속도 또한 다시 그러해라	일체티끌 중에도 또한 그와 같다.	일체의 티끌도 시방세계이다	날날의 티끌마다 시방세계 들어있네
無量遠劫卽一念	한이 없이 머나먼 무량겁이 일념이요	무량한 오랜 겁이 곧 일념이요.	무한한공간과 영원한시간이 곧 하나의 생각이요	무량한 오랜 세월도 한 생각 찰나이고
一念卽是無量劫	일념이 한이 없는 머나먼 겁이어라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	하나의 생각이 곧 무량한 시공간이다	겁한 생각 순간 속에 무량 세월 들어있네
九世十世互相卽	구세도 십세도 서로서로 즉했으니	구세와 십세가 서로 섞여있으나	구세와 십세가 서로에게 나아가도	구세 십세 영원시간 영켜 있는 모양이나
仍不雜亂隔別成	그러므로 잠란없이 따로따로 이루어라	마침내 혼잡하지 않고 따로 이룬다.	이로 인해 뒤섞임 없이 떨어져 따로 이룬다	어지럽지 아니하여 서로가 뚜렷하네
初發心時便正覺	처음발심 하온 때가 정각을 이룬 때요	처음 발심한 때가 곧 정각이요.	처음 마음을 낼 때가 곧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니	첫 발심했을 때가 부처님 자리이고

生死涅槃相共和	생과사와 큰 열반이 항상 서로 함께했고	생사와 열반은 언제나 하나이다.	살고 죽고 비어있음이 항상 함께 어우러진다.	생사와 열반이 서로 같은 모양일세
理事冥然無分別	이와 사와 아득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이와 사는 깊어서 나누어짐이 없으니	이치와 세상사는 그윽하여 분별이 없으니	진리 현상은 은은하여 분별이 없으니
十佛普賢大人境	열 부처님 보현보살 큰사람의 경계라	십불과 보현 등 대인의 경계이다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은 큰 사람의 경지로다	부처님과 보현보살 대인의 경지일세
能人海印三昧中	해인삼매 그속에 온갖 것을 갈무리고	사람이 능히 해인삼매 속에 들어가면	부처님 같이 해인 같은 삼매 가운데에 있으면	거룩한 법 해인삼매 가운데에 부처님
繁出如意不思議	불가사의 무진법문 마음대로 드러내며	자유자재로 부사의한 경계를 나타내리라.	마음먹은 대로 불가사의한 일이 자주 나타난다.	여의 진리 나타내니 불가사의 법이로다
雨寶益生滿虛空	온갖 보배 비 내리어 일체중생 이익하니	중생을 이익케 하는 비가 허공에 가득하니	보배같은 단비 생명을 키우고 허공을 채우니	중생 위한 감로법은 허공에 가득하니
衆生隨器得利益	중생들이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음이라	중생은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	중생은 제 그릇과 도량 따라 이익을 얻는다	중생은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구나.
是故行者還本際	이 까닭에 불자들은 본체에 돌아가서	그러므로 행자가 본체에 들어가려면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로 돌아가	우리가 이 도리를 얻고자 원한다면
叵息忘想必不得	망상을 쉬지 않곤 얻을 것이 바이 없네	반드시 망상을 쉬지 않을 수 없다	망상을 반드시 그치지 않으면 안된다	망상을 쉬지 않곤 아무것도 못 얻으리.
無緣善巧捉如意	인연 없는 방편지어 마음대로 잡아 쓰니	무연의 좋은 방편을 뜻대로 얻으면	연기의 고리를 잘 다스려 마음먹은 대로 하니	조건 없는 방편으로 여의주를 취할지니
歸家隨分得資糧	본집에	본가에 돌아가	집으로	고향 갈 분수

	돌아가서 분수 따라 양식 얻네	분을따라 자량을 얻으리라.	돌아가도 분수에 따라 자량을 얻는다	따라 노자를 얻는 도다.
以陀蘿尼無盡寶	이다라니 무진법문 끝이 없는 보배로서	이 다라니의 무진한 보배로써	다라니, 다함이 없는 보배 같은 경전 때문에	신묘한 다라니는 다함없는 보배이니
莊嚴法界寶寶殿	은 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이르고서	법계의 실다운 보전을 장엄하고	장엄법계가 과연 보배 같은 구궁전이다	은 법계 장엄하면 참다운 보전일세.
鷲座實際中道床	영원토록 참된 법의 중도 상에 편이없어	마침내 진실한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마침내 실제로 중도의 법상에 앉으니	마침내 실다운 진리 중도 없게 되면
舊來不動名爲佛	억만 겁에 부동함을 불佛 이라 이르니라	옛 부터 변함없는 부처라 이름 하리라.	예부터 부동함을 불러 부처라고 하였구나.	옛 부터 변함없어 이름 하여 부처로다

〈표 3〉

법성계의 한문개송	염불만일회 정 도 사 ⁴⁴⁾	오고산스님 ⁴⁵⁾	해주스님 ⁴⁶⁾	선 재 동 자 ⁴⁷⁾
法性圓融無二相	법의본성 원융 하여 두모습이 본래 없고	둥글고 오묘한 법 진리의 모습이 여	법성은 원융하 여 두모습 본래없 고	원융한 법의성 품 두 모습 아니 로다.
諸法不動本來寂	모든법이 동함 없이 본래부터 고요	고요뿐 동작없 는 삼라의 단상이	제법은 부동하 여 본래 고요하다.	모든 법은 변 함없이 본래가 고요한

43) 진리를 추구하는 만대산. 카페 <http://blog.daum.net/truthonly/9212682>

44) 염불만일회 정토사 : <http://blog.daum.net/jeungtosa/3777968>

45) 오고산스님 : <http://blog.daum.net/skykingeay>

46) 카페 <http://blog.daum.net/hm-108/8420381>에, 海住 스님, 화엄의 세계 306쪽 민족사 1998에서 인용개제

	해라	여		데
無名無相絕一切	이름없고 형상 없어 온갖것이 끊졌 으니	이름도 꼴도없 고 일체가 다없거 니	이름없고 형상 없고 일체가 끊어져	이름없고 모습 없어 일체가 끊어지 니
證智所知非余境	참지혜로 알일 일뿐 다른경계 아니 로다.	아는이 성인이 고 범부는 모르나 니	증득한 지혜로 알 바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	깨닫는 지혜일 뿐 지식으론 알수 없네
眞性甚深極微妙	참된성품 심히 깊어 지극히도 미묘 하니	묘하고 깊고깊 은 현묘한 진성이 여	진성은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여	참된 성품 깊 고깊어 지극하고 오묘 하니
不守自性隨緣成	자기성품 지키 않고 인연따라 이뤘 더라	제자리 벗어난 듯 세계를 나뉘이 여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 을 따라 이 룬다.	자기성품 못 지키고 인연따라 이어 지니
一中一切多中一	하나중에 일체 있고 일체중에 하나 있어	하나에 모다있 고 많은데 하나있 어	하나 가운데 일체이고 많은것 가운데 하나며	하나속에 모두 있고 여럿속에 하나 있어
一卽一切多卽一	하나바로 이일 체요 일체바로 하나 니라	하나곧 전체이 고 전체곧 개체이 니	하나가 곧 일 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다.	하나가 모두이 고 모두가 하나이 네
一微塵中含十方	한티끌속 그가 운데 시방세계 머금 었고	한티끌 작은속 에 세계를 먹음있 고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 시방을 포함하고	한 티끌 가운 데에 시방세계 담겨 있고
一切塵中亦如是	일체모든 티끌 마다 또한다시 그러 해라	날날의 티끌마 다 우주가 다들었 네	일체 티끌 중 에도 이와 같다.	일체의 티끌마 다 시방세계 들어 있네
無量遠劫卽一念	한량없는 머나 먼겁 그것바로 일념 이요	한없는 긴시간 이 한생각 일념이 고	한량없는 먼 겁이 곧 일념이고	무량한 오랜세 월 한 생각 찰나 이고
一念卽是無量劫	한생각이 그것 바로 한량없는 겁이 어라	찰나의 한생각 이 무량한 긴겁이 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	한생각 순간속 에 무량세월 들어 있네

九世十世互相卽	구세십세 서로 서로 어우러져 있음 에도	삼세와 구세십 세 영킨듯 한덩인 듯	구세와 십세가 서로 상즉하면서	삼세속 또 삼 세가 영켜있는 모양 이나
仍不雜亂隔別成	혼돈되지 아니 하여 따로따로 이루 었네.	그러나 따로따 로 뚜렷한 만상이 여	흐트러지지 않 고 따로 이룬다.	어지럽지 아니 하여 서로가 뚜렷하 네
初發心時便正覺	처음발심 하온 때가 깨달음을 이룬 때요	첫발심 했을때 가 부처를 이룬때 고	처음 발심할 때가 문득 정각이며	첫 발심했을 때가 부처님 자리이 고
生死涅槃相共和	생과사와 열반 등이 항상함께 어우 러져	생사와 열반경 계 바탕이 한몸이 니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이다.	생사와 열반이 서로 같은 모 양일세
理事冥然無分別	이와사가 아득 하여 분별할일 없는 것이	있는듯 이사분 별 혼연이 없는그 곳	이와사가 명연 하여 분별 없으니	진리와 형상은 항상하여 분별 없으니
十佛普賢大人境	열부처님 보현 보살 거룩한이 경계 일세	비로불 보현네 의 부사의 경계로 세	십불과 보현의 대인 경계이다.	열분의 부처님 과 보현보살 경지 일세
能人海印三昧中	해인삼매 그가 운데 온갖것을 갈무 리고	부처님 해인삼 매 그속에 나툼이 여	능히 해인삼매 속에 들어가	능히 사람들은 해인삼매 가운 데에
繁出如意不思議	불가사의 무진 법문 마음대로 드러 내어	쏟아진 여의진 리 그속에 부사의 여	번출의 여의함 이 불가사의하다.	여의롭게 나타 나니 불가사의의 법이 로다.
雨寶益生滿虛空	보배비가 허공 가득 중생들을 이익 주니	허공을 메워오 는 법비는 거룩했 네	보배비가 중생 을 도와 허공을 채우니	중생위한 감로 법은 허공에 가득하 니
衆生隨器得利益	중생들이 그릇	제나름 중생들	중생이 근기	중생은 근기따

	따라 온갖이익 얻어 가네.	로 온갖원 얻게하 네	따라 이익을 얻는다.	라 이익을 얻는구 나
是故行者還本際	이까답에 불자 들은 본래자리 돌아 가서	행자여 돌아가 라 진리의 고향으 로	그러므로 행자 는 본체에 돌아가	우리가 이 도 리를 얻고자 원한다 면
回息妄想必不得	어떻게든 번뇌 망상 쉬잖으면 아니 되네	망상을 쉬고가 라 헛길을 가지마 라	망상을 쉬지 않을 수없고	망상을 쉬지않 곤 아무것도 못얻 으리
無緣善巧捉如意	인연없는 방편 지어 마음대로 잡아 쓰니	오묘한 절대방 편 그길로 찾아가 라	무연의 선교로 여의를 잡아	조건없는 방편 으로 여의주를 취할 지니
歸家隨分得資糧	고향집에 돌아 갈때 분수따라 양식 얻네.	여의주 노자언 어 부처님 고향으 로	귀가함에 분수 따라 자랑 얻는다.	고향갈제 분수 따라 노자를 얻는도 다.
以陀羅尼無盡寶	다라니의 무진 범문 끝이없는 보배 로써	끝없이 쓰고쓰 는 다라니 무진보 로	다라니의 무진 한 보배로써	신묘한 다라니 는 다함없는 보배 이니
莊嚴法界寶寶殿	온법계를 진실 한 보배궁전 장엄 하여	불국토 법왕궁 을 한바탕 꾸미고 서	법계의 진실한 보배궁전을 장 엄하여	온 법계 장엄 하면 참다운 보전일 세
窮源實際中道床	영원토록 참된 법의 중도상에 편히 앉아	중도의 해탈좌 에 앉으면 깨달으 리	마침내 실제의 중도자리에 앉 으니	마침내 실다운 중도자리 앉게 되면
舊來不動名爲佛	억만겁에 부동 한것 그이름이 부처 일세.	옛부터 그랬었 네 그것이 부처였 네	예로부터 부동 함을 부처라 한다.	옛부터 변함없 는 그 이름이 부 처로다

2). 기신론을 통해 본 한글법성계

法性圓融無二相	법의본성 원융하여 두모습이 본래없고
諸法不動本來寂	모든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며
無名無相絕一切	이름없고 모습없어 그모두가 끊겼으니
證智所知非餘境	깨달아야 이는자리 다른경계 아니로다.
眞性甚深極微妙	그대로의 참성품은 매우깊고 미묘하며
不守自性隨緣成	자기본성 못지키고 인연따라 생겨나니
一中一切多中一	하나속에 일체있고 일체속에 하나있어
一卽一切多卽一	하나바로 일체이고 일체바로 하나로다.
一微塵中含十方	그하나의 티끌속에 시방세계 들어있고
一切塵中亦如是	일체모든 티끌마다 또한역시 그러하니
無量遠劫卽一念	한량없는 긴세월이 바로일념 찰나이고
一念卽是無量劫	한찰나의 한생각이 바로무량 세월일세.
九世十世互相卽	구세십세 서로엮혀 상즉하고 있는데도
仍不雜亂隔別成	어지럽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뚜렷하네.
初發心時便正覺	처음발심 내는때에 문득정각 이루나니
生死涅槃相共和	생과死와 열반모두 서로함께 있지만은
理事冥然無分別	리와事인 본체현상 아득하여 분별없어
十佛普賢大人境	시방제불 보현보살 대인들의 경계로다.
能人海印三昧中	부처님의 해인삼매 선정속에 계시면서
繁出如意不思議	부사의한 무진법문 마음대로 쏟아내니
雨寶益生滿虛空	중생위한 보배法비 온누리에 가득하여

衆生隨器得利益	중생들이 그릇따라 제이익을 얻는구나.
是故行者還本際	그러므로 수행자가 근본자리 돌아갈땐
叵息妄想必不得	번뇌망상 끊지않곤 증득할수 없음이며
無緣善巧捉如意	緣없어도 좋은방편 마음대로 잡아쓰며
歸家隨分得資糧	본고장에 돌아가니 분수따른 각을얻네.
以陀羅尼無盡寶	다라니의 다함없는 법문진리 보배로써
莊嚴法界實寶殿	일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만들고서
窮坐實際中道床	궁극으로 실상자리 중도상에 앉고보니
舊來不動名爲佛	예로부터 제자리데 이름하여 부처라네.

주제어

法性(Dharma-nature), 眞如(True suchness), 法界(Dharma realm), 流轉緣起 (Arising phenomena, 相即(Phenomenal identity), 理事(Noumena and phenomena), 還滅緣起(Returnng to original enlightenment), 妄想(False mind), 中道實相(True reality), 佛(Buddha).

A Study of the "Dharma-nature Song" (法性偈) of *Avatamaka-stura*:

- Interpretations on the Basis of the *Treatise on Awakening of Faith
in Mahayana* -

Chun, Chong-Sik

The song named Dharma-nature-song 法性偈 is what summarized Avatamaka-Stura 華嚴經 to 30 sentence 210 chinese character by high priest Eusang(義湘625-702) in AD668 and is appraised as an immortal masterpiece because they were reflected the substance of Avatamaka-Stura 華嚴經 with short sentence.

Therefore, this song has been translated in Korean song by many people and recited by many buddists. We could find Korean Dharma-nature-song 法性偈 of Priest Daehaing's, Kwangdok's, Ogosan's, Haejoo's from internet site, the books and magazines circulating in the Buddhist community. Besides, there are many other Korean Dharma-nature-song 法性偈 using by each Temple and buddist group.

However, some of items are differ rom originally meaning. Furthermore, the connection between each song and statements and rhythm are not suitable. Therefore I attempted those inconsistency to be revised to originally meaning in this study by demonstrating through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AFM 大乘起信論)

theoretical base.

This AFM has been contributed to interpret various the sutras in China and Japan. The history of commentaries study for AFM began with Fazang法藏(643-712)s' commentary Yiji義記 who is a great success the Avatamaka science in China and influenced to Japan and korea, We can the tracks of AFM study has been influenced and widened to not only Avatamaka science but also to Tendai sect天台, Shingon sect眞言, Chan sect禪, Lotus sect淨土 etc many religious sect.

Though this study I expect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wrong Korean song and I believe the correct Korean song will be flowed forever.